

의미관계를 고려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연구

김정아*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관용표현의 의미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고려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을 논의하는 것이다. 어휘교육의 목적은 어휘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며 이때 어휘 능력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제2 외국어의 어휘 교육에서는 많은 어휘를 교수·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휘의 의미와 용법을 알고 상황에 알맞게 선택하여 담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어휘 사용 능력을 높이고, 특히 상황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관용표현을 교육하는 방법의 하나로 관용표현의 의미 관계를 반영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관용표현은 두 단어 이상이 결합한 다단어 구성이지만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고 있어 문장에서 하나의 어휘와 같은 역할과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단어의 의미 관계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성단위의 형태적 특이성이 관용표현의 의미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단어와는 다른 관용표현의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하위관계의 특성을 분석하고 한국어 교육에서 고려할 점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한국어 교육, 관용표현, 의미관계, 반의관계, 유의관계, 상하위관계

* 나폴리오리엔탈레국립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지중해학과 한국학 전공 조교수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관용표현의 의미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고려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을 논의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언어 교육에서 어휘 교육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하는 최근의 한국어 교육에서도 어휘 교육은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어휘 능력(lexical competence)이 문장이나 대화 생성은 물론 담화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어휘 능력은 외국어 학습자들이 지향하는 유창한 언어 사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Lewis(1997)도 중급과 고급 학습자의 차이는 문법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어휘(menatl lexicon)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만큼 어휘 학습은 학습자들의 유창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

외국어 학습에서 어휘를 안다는 것은 의미와 용법을 이해하고 담화 현장에서 그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어휘의 생성 배경과 문화적 지식까지 더해진다면 어휘 활용 효과는 극대화된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관용표현은 두 단어 이상이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고정된 표현으로 사회나 언중들이 공유하는 문화를 배경으로 생성된다. 그래서 이런 언어 외적인 배경 지식이 없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학습하기에 어려운 내용으로 인식되고 교수자들에게도 교수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Gibbs 1994, Sorng 1988), 언어 습득 정도가 높아질수록 그 중요성은 커지므로 주의해야 한다.¹⁾

1) 오은화(2019: 90-91)에서도 중급 학습자들이 가장 학습하기 어려운 어휘 종류가 관용표현(조사 대상자 60% 응답)이었고 어휘 교재가 개발 된다면 추가로 공부하고 싶은 분야도 관용표현(조사 대상자 80%)이었다.

- (1) a.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4일간의 일정 마치고 성황리 **폐막**
 국내 생활체육 동호인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4월 30일 폐회식을 끝으로 4일간 이어진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스포츠투데이 4월 30일>
- b. 어머니가 방앗간 비슷하게 떡 도매를 하셨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공짜 좋아하지 말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어요. <경인일보 2023년 5월 10일>

관용표현은 (1a, b)와 같은 방송이나 신문 기사에서는 물론 다양한 매체나 일상 대화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1a, b)는 신문 기사의 일부로 (1a)에서는 ‘대회가 끝났다’를 나타내기 위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1b)에서는 너무 자주 많이 들었다는 의미로 ‘귀에 못이 박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은 상황이나 화자의 감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화자는 내용을 의도한 바대로 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자적인 의미 이상의 상황과 감정을 유창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단어뿐만 아니라 특수한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 관용표현을 교수·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관용표현 교육의 필요성은 많은 공감을 이루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을 위한 관용표현 목록 선정, 교재 및 사전의 관용표현 분석, 학습자의 모국어와 대조, 주제별 교수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이영숙(1992), 유덕자(1997), 문금현(1998)은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에서 선구적인 연구로 관용표현 교육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교육용 관용표현 목록을 선정하고 단계별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여 이후 연구의 중심이 되었다. 이후에도 한국어와 중

국어(황미연 2006), 한국어와 일본어(김애진 2009)를 대조하여 학습자의 모국어를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주제에 맞는 관용표현 교수 방법을 제안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권진·정혜령(2010), 조영화(2011), 배유진(2016), 정동준(2017), 김서우(2020)은 신체어, 조유진(2018), 정유남·최창원(2020), 이룬(2020)은 감정표현, 김동국·이상률(2015), 김정아(2015, 2021)은 동물을 주제로한 관용표현을 제시하고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밖에도 색채어(김영애 2017), 돈(김정남 2016)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한편 드라마나 신문 등의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방법을 제시한 연구도 있었는데 서수백(2016), 손혜진·임형옥·공하림(2018), 송대현(2020), 김효신(2020), 이현주(2013)은 드라마와 신문을 활용한 관용표현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고, 문화적 배경을 활용한 교육(박영숙 2010, 김애심 2017),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교육 방법(박기원 2019)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²⁾

이상의 연구들은 주로 의미 생성 배경의 특수성에 초점을 두고 교육 방법을 논의해 왔다. 관용표현이 일반 단어와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가 생성 배경과 형태적 특수성일 것이다. 하지만 관용표현도 하나의 의미 단위로 작용하는 단어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어휘 교육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어휘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첫째, 관용표현도 일반적인 어휘와 같은 특성을 보이므로 어휘 체계 내에서 교수·학습하고 둘째, 학습자들이 학

2) 이외에도 언어 간 대조를 통한 연구는 상당히 많으며 인지언어학을 기반으로 한 교육 방법도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

습한 어휘를 체계화하여 셋째, 학습자들이 문장이나 대화 맥락에 맞는 더 적절한 어휘를 선택할 수 있는 어휘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관용표현과 형태·의미적인 경계에 있는 연어와 속담과 비교를 통해 관용표현의 개념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관용표현의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하위관계의 특성을 살펴보고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다.

2. 관용표현의 형태·의미적 특성

이번 장에서는 관용표현이 갖는 형태·의미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특히 관용표현과 유사한 범주에 속하는 연어와 속담의 차이를 통해 관용표현이 갖는 어휘적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관용표현’이 일반적인 단어와 같은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 체계 내에서 의미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관용표현은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 단위(meaning unit)를 형성하는 다단어 구성(multi words)을 말한다. 형태적으로는 구(phrase)이상의 범주에 속하지만 의미적으로는 단어(single word)의 범주에 속하며 구성 성분의 문자적 의미에 더해 언어 사용자들의 정서와 문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표현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관용표현은 구성 성분들끼리 강한 선택 관계를 이루며 구 단위를 형성하여 독립적인 의미를 실현한다. 이런 관용표현의 형태적인 고정성이

자유 결합과 다른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복수의 어휘가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고정된 방식으로 사용되는 예는 관용표현 외에도 연어 (collocation)와 속담(proverb)이 있다.

- (2) a. 눈을 뜨다, 머리를 감다, 코를 골다, 방귀를 뀐다, 전철을 밟다, 물구나무를 서다, 몸부림을 치다, 부산을 떨다
 b. 눈이 높다, 호박씨를 까다, 간담이 서늘하다, 간이 크다, 뼈에 사무치다, 발이 넓다

(2a, b)는 체언과 용언으로 구성되어 관습적으로 쓰이는 표현들이다. 형태적으로 같은 구성을 보이지만 구성 성분이 전체 의미에 기여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연어 구성의 예인 (2a)는 구성 성분의 일부가 나머지 구성 성분을 필수적으로 선택한다. 즉 ‘뜨다’, ‘감다’, ‘뀐다’가 선택할 수 있는 체언은 ‘눈’, ‘머리’, ‘코’로 제한적이므로 용언에게는 선행 체언은 필수적이다. 또한 ‘전철’, ‘물구나무’, ‘몸부림’, ‘부산’의 경우에도 문맥에서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용언(서다, 치다, 떨다)을 필수적으로 선택한다. 즉 연어의 고정성은 구성 성분의 일부가 나머지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이 성분은 상당히 제한적이다.³⁾

한편 관용표현인 (2b)의 예는 ‘눈’과 ‘높다’, ‘호박씨’와 ‘까다’ 등의 구성 성분은 서로 대등하게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를 도출한다. ‘눈’과 ‘높다’는 상호 선택되어 ‘안목이 높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⁴⁾ ‘호박씨’

3) 이런 연어 구성의 특성을 김진해(1999: 244)는 ‘선택의 단일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 연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상호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요소가 다른 요소를 요구하는 일정한 방향성을 이루며, 이 점이 연어를 다른 범주들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성이다.

4) 관용표현의 의미에서 비유는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작용 범위는 다르다. 작용 범위의

와 ‘까다’, ‘간담’과 ‘서늘하다’, ‘간’과 ‘크다’, ‘빠’와 ‘사무치다’, ‘발’과 ‘넓다’의 경우도 한 구성 성분이 다른 구성 성분을 상호 선택하여 고정된 표현으로 쓰인다. 요컨대, 연어와 관용표현은 구성 성분이 결합하여 의미를 생성하지만 구성 성분의 결합에서 작용하는 선택의 작용은 서로 다르다. 일방향적인 선택을 하는 연어와는 달리 관용표현은 상호 선택하여 형태가 고정되어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

의미의 고정성에서도 연어와 관용표현은 차이를 보인다. 연어의 경우 구성 요소들의 의미가 다의화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문자적 의미를 그대로 드러낸다. 하지만 관용표현의 경우 구성 성분, 혹은 전체 표현이 비유의 과정을 거쳐 최종 의미를 도출하게 된다(문금현 1999: 43). 즉 관용표현은 각 구성 성분이 갖는 문자적 의미 경계가 없이 하나의 단일한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구성 성분 간의 경계가 분명한 연어에 비해 일반적인 단어의 성격을 더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구 이상의 단위가 비유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속담이 있다. 속담은 형태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비유의 과정을 통해 의미를 획득한다는 점에서는 관용표현과 성격을 같이 한다. 하지만 속담과 관용표현은 문장 내에서 실현하는 양상과 표현 의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 (3) a. 그는 의장을 맡은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의 발언마다
말꼬리를 잡고 늘어졌다. <영남일보 2023년 4월 27일>

유행은 (1) 구성 요소들 사이에서 비유가 작용하는 경우(손이 크다, 맛이 가다), 사전적 의미와 관습적 의미 사이에서 비유가 작용하는 경우(호박이 떨어지다), (3) 문맥과의 연결 및 해석에서 비유가 작용하는 경우(뚜껑을 열다)가 있다(김정아 2017: 125).

- b.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 없다고 등장인물이 많은 드라마는 이야기도 많다. <씨네21 2008년 2월 21일>
- c.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도내 5세이하 3세까지의 어린이들이다. <전남도민일보 2015년 6월 15일>

(3a-c)는 어렵거나 부정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3a)의 관용표현은 상황이나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고 표현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하지만 (3b, c)의 속담은 상황 표현에 더해 교훈 전달이나 풍자이라는 언어 외적인 기능도 하고 있다. 관용표현은 공시적인 배경이 비유를 일으키는 기제가 되지만 속담의 경우 좀더 경험적인 사회·문화적 배경이 비유의 기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교훈과 풍자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속담의 교훈성과 풍자성은 다른 표현들은 가지지 않는 속담의 특성이다. 속담의 교훈성은 구비 전승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발화자가 상대방을 훈계하거나 경계심을 유발하려는 의도와 관련되어 실현되는 속성이다(주경희 2002: 303). 즉, 관용표현은 문장에서 어휘적인 기능에 한정된다면 속담은 화자가 의도하는 풍자와 교훈 전달이라는 언어 외적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관용표현은 속담에 비해 더 어휘적인 속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관용표현과 속담은 표현 문장에서 실현되는 양상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4a, b)를 보자.

- (4) a. 누구나 남성, 특히 자기보다 나이 많은 남성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말을 끊고 들어왔던 경험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히프포스트코리아 2020년 10월 8일>

- b. 사방팔방에 자신을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벽에도 귀가 달려있다**는 사실과 나쁜 행동은 언젠가는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뉴시스 2023년 3월 29일>

(4a)의 관용표현 ‘앞뒤 가리지 않고’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구 행동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4a)에서는 ‘신중하지 않게 함부로’라는 부사어 기능을 한다. (4b)의 ‘벽에도 귀가 달려있다’는 속담으로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독립적인 문장으로 기능한다. 요컨대, 관용표현은 문장을 이루는 한 성분으로써 기능하지만 속담은 그 자체로 독립된 문장으로 인용된다. 즉 관용표현은 문장에서 단어와 같은 지위를 갖지만 속담은 독립된 문장으로서의 지위를 보인다. 김혜령 (2016: 225-226)은 속담에서 유래한 ‘오르지 못할 나무’, ‘공든 답’과 같이 완결되지 못한 형태의 표현들은 맥락에 관계 없이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지만, 동시에 속담이 갖고 있던 교훈성이나 풍자성이 제거되거나 약화된다고 했다. 즉 속담의 독립적인 사용 패턴은 속담이 갖는 언어 외적인 기능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요컨대, 관용표현은 문자적 의미가 실현되는 연어와는 다르게 개별 구성 성분이나 표현 전체가 비유적인 의미를 가지며 하나의 의미 단위로 단어와 같은 기능을 한다. 한편 비유적인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관용표현은 속담과 성격을 같이한다. 하지만 속담은 비유적인 의미에 더해 교훈이나 풍자와 같은 언어 외적인 역할도 수행한다는 점에서 언어 표현에 집중하는 관용표현과 차이를 보인다.

이상에서 관용표현과 형태적·의미적으로 유사한 연어와 속담을 살

해보았다. 관용표현은 하나의 개념을 표현하는 단일한 의미 표현 단위로 쓰인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단어와 같은 기능을 하며, 일상 언어에서 단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용표현도 어휘교육이 같은 체계와 원리를 적용하여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어 관용표현의 의미관계

이번 장에서는 관용표현의 의미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관용표현은 두 단어 이상이 결합된 구(phrase)이지만 하나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단일 의미 단위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단어와 같이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하위관계의 체계를 갖는다. 하지만 형태적·의미적 특수성에 의해 관용표현의 의미관계는 일반적인 단어와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관용표현 의미관계의 특성은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3.1. 관용표현의 유의관계

유의관계(類義關係)는 같거나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 간의 의미관계이며, 유의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유의어(類義語)라고 한다. 이때 초점이 되는 의미의 동일(同一)함의 기준은 지시 대상이 아니라 의미가 된다. 일반적으로 동의관계(同義關係)는 의미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절대적 동의관계와 상대적 동의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절대 동의는 단

어의 의미가 모든 맥락에서 동일하게 실현된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동의어는 문맥상에서 의미나 분포의 차이를 가지며 언중들의 인식 속에 같으면서도 다른 것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상대적 동의관계 혹은 유의관계라고 한다(임지룡 2018: 162).⁵⁾

일반적인 단어의 유의 관계는 본말과 전문용어, 준말 등의 관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 ‘메아리-산울림’과 같이 이원적인 유의어 쌍이 있는가 하면 ‘참다-견디다-버티다-배기다’와 같이 다원적인 유의어쌍도 있다. 또 유의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다방-커피숍-카페’와 같이 새로운 유의어가 유입되어 확장되기도 한다. 이런 단어들과 같이 일상 언어에서 단어와 같이 기능하는 관용표현도 유의관계를 가진다. 다만 일반적인 단어와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첫째, 관용표현은 개념적으로 대응되는 대응어를 가지면 대응어와 유의관계를 이룬다.

- (5) a.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4일간의 일정 마치고 성황리 **폐막**
 b. 국내 생활체육 동호인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4월 30일 폐회식을 끝으로 4일간 이어진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스포츠투데이 4월 30일>

- (6) a. 시월의 바람에 실려 온, **입에 풀칠**
 b. 홀어머니와 단 둘이 살던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가**

5)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휘들 중에서는 대상과 개념은 같지만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 간에 문체적인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전문어와 일상어 간에는 전문성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방언과 표준어, 본말과 준말, 비속어도 서로 특수한 차이를 보인다. 즉 모든 맥락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유의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난해서 모녀가 죽을힘을 다해 밤낮으로 일을 했어도 겨우
입에 풀칠만 했다고 한다. <중부일보 2022년 2월 7일>

(5a)와 (6a) 기사의 제목이고 (5b)와 (6b)는 기사의 내용이다. 기사
내용에서 사용한 ‘대단원의 막을 내리다’는 제목의 ‘폐막(하다)’에 대응
하는 관용표현이다. (50a)의 ‘폐막(하다)’은 (5b)의 ‘대단원의 막을 내
리다’의 대응어로 서로 유의관계를 형성한다. (6a)의 ‘입에 풀칠’과 (6b)
의 ‘가난’도 대응어로 서로 유의관계를 형성한다.

- (7) a. 간이 떨어지다 - 놀라다
- b. 세상을 뜨다 - 죽다
- c. 붓을 놓다 - 절필하다
- d. 발이 넓다 - 아는 사람이 많다
- e. 호흡이 맞다 - 생각이나 의향이 맞다

관용표현과 유의관계에 있는 대응어는 (7a)-(7c)와 같이 단어가 될
수도 있지만 (7d)나 (7e)와 같이 단어 이상의 단위가 되기도 한다. 관용
표현은 개념이나 상황을 더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고려한
다면 학습자들에게 (7a)-(7e)의 관용표현은 해당 대응어와 함께 상황
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된다. 다만, (7b)의 ‘세상을 뜨다’는 구어
보다는 문어에서 더 많이 사용되므로 문학적인 표현이므로 교수·학습
에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다.⁶⁾ 따라서 관용표현과 유의관계에 있는 대응

6) 관용표현이 출현하는 영역을 파악하기 위해 <연세 말뭉치 용례 시스템>에서 해당
관용표현의 용례를 내려받아 분석해 보았다. ‘세상을 뜨다’의 경우 구어에서는 사용
례를 찾지 못하였다. 문어 자료에서는 437개의 ‘세상을 뜨다’ 용례 중에서 257개로
절반이상이 ‘문학’ 자료에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와 관용표현 학습에서는 문체적 차이를 중심으로 관용표현의 용법을 교수·학습해야 한다.

둘째, 관용표현은 다양한 변이형(variation)이 있으며 변이형과 서로 유의관계를 형성한다. 관용표현은 형태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한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고정된 형태로 이해하고 저장하며 사용된다. 고정성(fixedness)은 관용표현을 정의하는 가장 큰 특징이다. 하지만 실제로 관용표현의 고정성은 절대적이지 않다. 관용표현을 구성하는 성분들은 교체가 가능하며 성분이 교체되어도 관용표현의 의미는 유지된다.⁷⁾

- (8) a. 안경을 쓰다 - 색안경을 쓰다
- b. 혀가 굳다 - 혀끝이 굳다
- c. 시치미를 떼다 - 시침을 떼다
- d. 머리를 굴리다 - 대가리를 굴리다

(8a-d)는 구성 성분이 교체된 변이형의 예이다. 성분 교체 유형을 살펴보면 (8a)의 ‘안경’과 ‘색안경’은 상하위관계, (8b)의 ‘혀’와 ‘혀끝’은 부분-전체관계, (8c)의 ‘시침’과 ‘시치미’는 본말과 준말, (8d)의 ‘머리’와 ‘대가리’는 본말과 비속어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다. 이들 변이형은 교체되는 성분 간에 의미적 유연성을 발견할 수 있다.⁸⁾ 학습자들에게는 비교적 의미 연상이 가능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용표현의 변이형은 구성 성분인 단어 초점을 둔 교수·학습이 필요하다. 관용표

7) 장기성(2004: 249)은 어휘적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서 표현적 효과를 달리 하는 변이형(variation)과 임시적으로 필요에 따라 구성요소의 대치를 이용하는 변형(modification)으로 구분한 바 있다.

8) 관용표현의 변이형은 이 밖에도 ‘쓰다 달다 말이 없다’와 ‘달다 쓰다 말이 없다’는 구성 성분의 순서가 교체된 예도 있다.

현을 구성하는 어휘의 상하위관계, 준말, 비속어 등을 학습함으로써 어휘의 의미체계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할 수 있는 어휘량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다. 특히 한국어 음운 축약 원리를 학습하고 적용해 볼 수 있고 비속어 사용의 주의점 등을 학습할 수 있다.

셋째, 구성요소 간의 형태·의미적 유연성이 없는 표현과도 유의관계를 이룬다. 즉 구성요소의 일부가 교체된 변이형과는 다르게 구성요소 간에 특별한 관련성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동일한 상황을 표현하거나 감정을 나타내는 관용표현이다. 이와 같은 예를 보이면 다음 (9a-g)와 같다.

- (9) a. 나사가 빠지다 - 맥을 놓다 - 태엽이 풀리다
- b. 꼬떡도 않다 - 눈썹하나 까딱하지 않다
- c. 급소를 찌르다 - 털미를 치다
- d. 기지개를 켜다 - 걸음을 떼다
- e. 눈만 뜨면 - 낮이고 밤이고 - 눈이 오나 비가 오나
- f. (입에) 침이 마르다 - 입이 마르다(닿다) - 혀다 닿다
- g. 고개를 숙이다 - 무릎을 꿇다 - 머리를 숙이다

(9a-g)의 관용표현들은 같은 상황에서 서로 교체되어 사용될 수 있는 표현들이지만 (8)에서 살펴본 변이형과는 다르다. 같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구성요소 간의 관련성을 찾아 보기 어려워 학습자들 쉽게 학습하기 어렵다. 이렇게 구성요소 간의 관련성이 없지만 두 표현이 같은 의미를 갖는 경우 관용표현이 생성된 배경에 초점을 둔 교수·학습이 필요하다. 관련성이 없는 구성요소가 같은 의미를 갖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통해 관용표현의 생성 원리와 유의 관용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관용표현은 대응어, 변이형, 그리고 구성 성분간에 유연성이 없는 표현과도 유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유의관계를 형성하는 기제에 따라 차별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한 언어에 유의어가 있거나 혹은 많다는 것은 학습자들이 같은 상황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하여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학습자들의 입장에서는 비슷한 의미의 표현들을 구분하는 기준을 학습해야 한다. 그러므로 단어와 생성 원리와 배경 등을 통해 다양한 구분 기분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3.2. 관용표현의 반의관계

둘 이상의 단어가 서로 반대 의미를 가지면서 대립하는 경우, 이를 반의관계(antonymy)에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반의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양극단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로 많은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면서 단 하나의 의미 요소가 현저하게 대립된다. 일반적으로 반의관계는 대립의 양상에 따라서 정도반의어, 상보반의어, 관계반의어로 구분할 수 있다. 상보반의는 ‘죽다-살다’와 같이 한 쪽의 부정이 다른 쪽을 함의하는 경우, 정도반의는 동시에 두 쪽 모두 부정이 가능한 경우이다. ‘춥다-덥다’, ‘길다-짧다’를 예로 들 수 있다. 한정적인 상황이 전제되는 ‘스승-제자’, ‘일반인-연예인’과 같은 대립양상을 보이는 경우를 방향반의라고 한다. 관용표현은 상황이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므로 상보반의의 예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 (10) a. 손이 크다 - 손이 작다
- b. 눈이 높다 - 눈이 낮다
- c. 어깨가 가볍다 - 어깨가 무겁다
- d. 이름이 있다 - 이름이 없다
- e. 기가 살다 - 기가 죽다

(10a-e)는 반의관계 있는 관용표현의 예이다. 이렇게 반의관계에 있는 관용표현들은 대부분 구성 요소의 서술어가 반의 관계에 있는 예가 많다. (10a)의 ‘크다-작다’, (10b)의 ‘높다-낮다’, (10c)의 ‘가볍다-무겁다’, (10d) ‘있다-없다’는 모두 정도반의어에 해당하고, (10e) ‘살다-죽다’는 상보반의어에 해당한다. 하지만 (10a-e)의 관용표현은 모두 정도성을 갖는 정도 반의어에 해당한다.

의미관계를 활용한 어휘 교육의 효율성을 분석한 이민우(2015)에 의하면 반의관계에 있는 어휘의 학습 효율이 다른 의미관계보다 높다. 이는 두 단어의 대조적인 차이가 선명하기 때문이며, 선명한 대조성은 학습자들이 어휘를 기억하는 데 용이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의 관계에 있는 관용표현과 구성성분인 단어의 분명한 대조성을 함께 제시한다면 학습자들이 두 관용표현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11a-d)의 예는 구성 성분들의 의미 관계와는 무관하지만 관용표현 간에 반의관계를 보이는 예들이다.

- (11) a. 주머니가 넉넉하다(두둑하다/든든하다) - 주머니가 가볍다
- b. 하루같이 - 하루이틀
- c. 이목이 넓다 - 머리가 비다

d. 학교 근처에도 못 가다 -가방끈이 길다

(12a)는 경제적 사정에 대한 상황을 나타내는 관용표현으로 ‘주머니’를 공유하고 있지만 ‘넉넉하다’와 ‘가볍다’는 반의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성이 없다. (11b)에서도 ‘늘’, ‘항상’을 의미하는 ‘하루같이’와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하루이틀’은 ‘하루’를 공유하고 있지만 반의관계에 있으며 나머지 구성요소 ‘같이’와 ‘이틀’은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한편 (11c)와 (11d)는 구성성분의 관련성을 전혀 찾아보기 힘들어 관용표현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반의관계에 있는 표현임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요소의 의미로 파악하기 어려운 관용표현의 경우 사회·문화적인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 생성 배경을 이해하고 서로 반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관용표현들을 제시하고 유추하는 과정이 관용표현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3.3. 관용표현의 상하위관계

유의관계나 반의관계가 어휘소들의 수평적인 관계라면 상하위관계(hyponymy)는 수직적으로 연결되는 관계이다. ‘과일’과 ‘사과, 딸기, 포도...’의 관계와 ‘얼굴’과 ‘눈, 코, 입...’은 수직적인 연결을 연상할 수 있다. 이런 수직적 의미관계는 어휘의 상하위 범주를 설정하고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여 어휘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남경완 2020: 137).

일반적인 단어에서는 상하위관계를 연쇄적으로 설정하여 어휘 전체의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관용표현에서는 주로 감정이나 사

건, 사태를 표현하는 역할을 하므로 거시적인 체계를 설정하기는 힘들다. 관용표현의 상하위관계는 주로 사건을 표현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 (12) a. 세상을 등지다(떠나다/버리다), 이승을 떠나다(하직하다),
숨을 거두다, 목숨을 잃다
- b. 천당에 가다, 저승에 가다
- c. 곁을 떠나다
- d. 고기밥이 되다, 급살을 맞다, 목숨을 끊다(죽음의 동기)
- e. 밥숟가락 놓다, 숨통이 끊어지다

(12a-e)는 ‘죽다’와 관련된 관용표현들로 (12a)의 관용표현들은 ‘죽다’를 나타내는 표현들이다. 하지만 (12b)의 ‘천당’과 ‘저승’에 가는 것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죽다’를 의미하며, (12c)의 ‘곁을 떠나다’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이르는 표현으로 ‘죽다’라는 사건의 대상을 한정한다. (12d)의 ‘고기밥이 되다’는 ‘익사’, ‘급살을 맞다’는 ‘갑작스러운 죽음’, ‘목숨을 끊다’는 ‘자살’을 각각 의미하며 죽음의 계기나 동기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12e)는 ‘죽다’를 이르는 비속한 표현으로 사건 대상에 대한 표현 화자의 감정과 사건의 배경을 반영한 표현이다. 이렇게 ‘죽다’를 표현하는 관용표현을 상위어(12a)를 중심으로 하위어(12b-e)를 체계화해 볼 수 있다. 이런 체계에는 죽음이라는 사건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고유한 정서가 반영되어 있다. 다음은 결혼 사건과 관련된 관용표현이다.

- (13) a. 회축을 밝히다, 국수를 먹다(먹이다)
- b. 시집을 가다, 머리를 엮다(올리다), 평생을 맡기다
- c. 장가를 가다

d. 팔자를 고치다

(13a-c)는 ‘결혼하다’와 관련된 관용표현들로 (13a)의 ‘화촉을 밝히다’와 ‘국수를 먹다(떡이다)’는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다’ 혹은 ‘결혼을 하다’를 의미한다. 반면 (13b)의 ‘시집을 가다’, ‘머리를 엇다(올리다)’, ‘평생을 맡기다’는 ‘여자가 결혼을 하다’를 의미하며, (13c)의 ‘장가를 가다’는 ‘남자가 결혼하다’를 의미한다. (13a) ‘결혼하다’를 중심으로 성별에 따라 (13b) ‘여자가 결혼하다’와 (13c) ‘남자가 결혼하다’의 체계가 구성된다. 한편 (13d)의 ‘팔자를 고치다’는 ‘여자가 재혼을 하다’를 나타내는데 이는 (13b)의 하위어가 될 수 있다.

요컨대, 관용표현의 상하위관계는 사건을 나타내는 표현에서 체계화할 수 있다. 상위의 사건 표현에 대응하는 하위 사건 표현은 사건의 대상, 동기, 화자의 감정 등으로 하위 사건으로 세분화된다. 이런 세분화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전통적 사고 방식과 문화이다. 따라서 관용표현의 상하위어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관용표현을 통해 사건을 인식하는 한국인들의 정서와 문화를 교수·학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관용표현의 상하위관계를 체계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을 위해 관용표현의 의미관계를 분석하고 그 특성을 반영한 교육 방안을 논의했다. 지금까지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교육 목록, 대조를 통한 교수 방법, 매

체를 활용한 교수 방법 등에 집중되어 왔다. 이에 이 연구는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았던 관용표현의 의미관계에 초점을 두고 어휘 교육의 차원에서 관용표현의 의미 체계를 이해하고 이를 고려하여 교수·학습할 것을 논의해 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용표현은 둘 이상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의 의미를 갖는 표현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갖는다. 관용표현은 형태·의미적으로 공통점을 갖는 연어와 속담보다 더 어휘적인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관용표현도 일반적인 단어와 같이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하위관계의 의미 관계를 형성한다.

둘째, 관용표현의 유의관계는 대응어, 변이형이 있었다. 특히 변이형의 경우 구성 성분이 유연성을 갖는 경우와 유연성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유연성이 있는 변이형은 구성 성분의 어휘를 중심으로 교수·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연성이 없는 변이형은 생성 배경을 중심으로 교수·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관용표현의 반의관계는 대부분 정도반의어에 포함되며, 유의관계와 같이 구성 성분이 반의관계에 있는 예와 그렇지 않은 예가 있었다. 구성 성분이 반의관계에 있는 경우 어휘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구성요소 간에 의미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관용표현의 생생 원리와 배경에 초점을 두고 교수·학습해야 한다.

넷째, 관용표현의 상하위관계는 사건을 나타내는 관용표현에서 찾을 수 있었다. 상위개념의 관용표현에서 사건의 대상, 동기, 수단 및 화자의 감정 등이 하위개념을 분화하는 기제가 되었다. 이러한 하위 분화 양상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와 전통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관용표현의 상하위관계는 사회·문화 교육의 차원에서 함께 이루어져

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관용표현도 일반적인 어휘와 같은 원리로, 관용표현의 의미관계를 체계화하여 이해하고 확장적으로 어휘를 학습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는 관용표현을 이루는 구성 성분의 어휘적 요소에 초점을 두고 의미관계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호흡이 맞다’와 ‘호흡을 맞추다’, ‘기가 죽다’, ‘기를 죽이다’와 같이 문법적인 차이를 보이는 유형들과 ‘호흡을 맞췄다’, ‘호흡을 맞춰야 한다’, ‘호흡을 맞춘 팀’ 등 다양한 활용형도 함께 교수·학습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교수·학습 방안은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의 어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으며 학습자들의 유창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성영(2008), 「연어·관용어·속담의 범주적 특성과 상호 관계」, 『한국프랑스학논집』 제61집. 한국프랑스학회, 1-24쪽.
- 김동국·이상률(2015),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방안 연구-동물명이 포함된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언어과학』 22(1), 한국언어과학회, 49-70쪽.
-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연구」, 집문당.
- 김서우(2020),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신체어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 김애심(2017), 『문화적 배경을 활용하는 한국어 관용어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애진(2009),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어 교육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정아(2015), 「동물명 관용표현에 나타난 개념적 은유 양상」, 『국제언어문학』 32, 149-174쪽.
- 김정아(2017), 「관용표현의 유의관계와 반의관계」, 임지룡 외, 『의미관계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120-146쪽.
- 김정아·티피왓 앙쿨(2020), 「동물명 관용표현의 의미 교육 연구: 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화와 융합』 42(11), 문화융합학회, 943-976쪽.
- 김정아(2021), 「동물명 관용표현의 한국어 교육 방안」, 임지룡 외, 『관용표현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237-270쪽.
- 김진해(1999), 「연어(collocation)의 의미관계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4, 한국어 의미학회, 239-279쪽.
- 김혜령(2016), 「속담 기반 표현의 특성」, 『한국어 의미학』 54, 한국어의미학회, 203-229쪽.
- 김효신(2020),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72-78쪽.

- 문금현(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이중언어학』 15, 이중언어학회, 207-233쪽.
- 문금현(1999), 『국어 관용표현 연구』, 태학사.
- 박영숙(2010), 『관용어의 유래담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배유진(2016),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신체 관련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전공 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 서수백(2016), 「시트콤 자료를 활용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연구-시트콤<지붕 뚫고 하이킥>을 대상으로」, 『인문논총』 41,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07-334쪽.
- 손혜진·임형옥·공하림(2018), 「TV 드라마 대본을 통한 한국어 관용표현의 사용 맥락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 18(7),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319-340쪽.
- 송대현(2020),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드라마 <도깨비> 속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언터네인먼트산업학회지』 14(5), 한국언터네인먼트산업학회, 181-191쪽.
- 안소진(2020), 「속담의 인지적 특성과 사용 효과에 대한 연구-기사 텍스트에서의 쓰임을 중심으로-」, 『國語學』 96, 국어학회, 181-218쪽.
- 오은화(2019), 『중급 한국어 학습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연세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 유태자(199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룬(2020), 『한국어 감정 관련 관용표현의 교육 방안 연구: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동신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원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민우(2015), 「의미관계를 이용한 어휘교육의 효과 연구-고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6(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65-190쪽.
- 이영숙(1992), 「신체 관용어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의 활용」,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7(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95-117쪽.
- 이현주(2013),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신문 읽기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전공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 임지룡(2012), 「현대 국어 동물 속담의 인지언어학적 가치론」, 『국어교육연구』 50(3), 국어교육학회, 377-404쪽.

- 임지룡(2018), 『한국어 의미론』, 한국문화사.
- 장기성(2004), 「성구서의 변이형」, 『언어과학연구』 31, 언어과학회, 247-270쪽.
- 정유남·최창원(2020),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감정 관용표현의 교수 학습」, 『어문론집』 82, 중앙어문학회, 417-450쪽.
- 정동준(2017), 「한국어시험(TOPIK)에서의 관용표현 문항 출제 필요성 연구-신체관용구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어교육학회, 131-148쪽.
- 주경희(2002), 「속담과 관용어의 차이점-의미 실현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30, 국어국문학회, 83-108쪽.
- 조유진(2018), 『한국어 교육에서의 관용표현 교수 방안: 감정표현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한국어학과 석사학위논문.
- 조영화(201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표현 교육 방안: 신체 내부 관련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권진·정혜령(201), 「매체 자료를 활용한 한국어 신체 관용어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7(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21-246쪽.
- 황미연(2006), 『한국어와 중국어의 관용표현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장기성(2004), 「성구소의 변이형」, 『언어과학 연구』 31, 언어과학회, 247-270쪽.
- Gibbs, R. W.(1994), *The Poetics of Mind: Figurative Thought, Language and Understand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나익주 역(2002), 『마음의 시학』, 한국문화사.)
- Lewis, M.(1997), “Pedagogical implications of the lexical approach”, In Coady, J. and T. Huckin(eds), *Second language vocabulary acqui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55-270.
- Soring, K.(1988), “Idioms in language teaching”, In Hüllen, W, and R. Schulze(eds), *Understanding the Lexical Meaning, Sense and World knowledge in Lexical Semantics*, Tübingen: Max Niemeyer, 280-290.

A Study on the Education of Korean Idiomatic Expressions in consideration of Semantic Relations

Kim, Jung-a

Abstract

The present study is a discussion for proposing the application of semantic relations of idiomatic expressions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through their analysis. The purpose of lexical education is to improve lexical competence, and at this stage, both quantity and quality are important for lexical competence. Teaching and learning a large vocabulary is important for the lexical education of a second language, but, more than anything, it is important to choose the appropriate meaning and usage of a word to continue on a conversation. This study proposes incorporating the semantic relations of idiomatic expressions as a method of increasing the ability to use vocabulary for Korean language learners. Idiomatic expressions consist of multiwords that combine two or more words but form a single semantic unit so that they exhibit semantic functions identical to a single word in a sentence. Therefore, the semantic relations of general words characterize idiomatic expressions, but at the same time, characteristics unique to idiomatic expressions impact semantic relations. This study proposes incorporating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of such idiomatic expressions into Korean language education.

Key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idiomatic expression, semantic relation, synonymy, antonymy, hyponymy

논문투고일: 2023. 05. 12.

심사완료일: 2023. 05. 17.

게재확정일: 2023. 05. 18.